

現代人の 倫理的 性格

倫理의 두 가지 典型 (2)

金午星

모든 人間을 日常化, 凡庸化, 平均化시키는데 이 倫理의 特色이 있다. 여기서 自己의 主觀的인 感情이나 欲望 또는 自己의 獨創性을 拋棄하는 人間만이 人格者가 된다. 그러므로 從來의 倫理的 乃至 道德的 人格者는 오직 傳統的 習慣에 服從할 줄 아는 受動的 人間들일 뿐이요, 어떤 새로운 것을 生産하며 創造하는 能動的 人間은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道學家들을 陳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倫理의 世界에는 온갖 德目 즉 道德的 格率이 支配될뿐 人間의 主體的인 創意는 容認되지 않는다. 이런 意味에서 沒 人間의 倫理를 格率的 倫理라고 命名할 수 있다.

둘째, 格率的 倫理는 客觀的, 社會的 規範의 하나다. 倫理는 한 개의 人間 行爲를 일음이며 行爲의 反復에서 지여지는 習慣이 한 개의 客觀的, 社會的 規範으로 體系化될 때 格率的 倫理가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나 習慣이 倫理的 規範을 形成하는대는 人間이 그 習慣을 無意識的으로 反復하며 追從할 뿐 아니라 또한 意識的으로 支持하며 保守하지 안하면 안되는 것이다. 自己네의 行爲의 習慣, 生活의 習慣을 絶對化시키려 할 때에 그 習慣은 한 개의 客觀的, 社會的 規範으로 自己를 昂揚시켜 以來의 온갖 人間의 行爲를 強制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대 모든 人間이 自己의 行爲와 生活에서 지여진 習慣을 肯定하며 그것을 絶對化시키려는 것은 그들의 現實的인 行爲가 그들의 傳統的 習慣에 依存하는 客觀的, 社會的 現實과 融合되어 잇는 까닭이다. 人間은 主體인 同時에 客體이다. 人間은 그가 自己의 生活環境 즉 習慣에 對하여 어떤 強制와 壓迫을 느끼거나 不滿을 느끼고 거기서 超克하려 할 때는 그 環境에 對하여 自己를 主體的 存在로서 認識하게 된다. 그러나 人間은 自己의 生活習慣에서 아무런 不滿을 느끼지 안거나, 그것에서 強制와 壓迫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依據하며 그것을 保存하므로써 오히려 自己네의 目的을 達成하려고 할 때 그들은 自己를 그 環境과 區別할 줄 모른다.

즉 그들은 環境의 一部에 不過한 한 개의 客體的 存在에 不過한 것이다.

이와 가티 習慣(環境)을 保守하며 그것에 依據함으로서 오히려 自己네의 目的을 達成할여 할 때는 그들은 오직 習慣의 아들로서 滿足하며 그들 各自의 行爲를 그 習慣(社會)에 對한 義務로서 생각하게 된다. 人間은 自己의 意識을 파괴하면 들어갈수록 어떤 他人과도 通치 않는 獨自의 人格이 잇지만은, 自己를 한갓 그 習慣에 맞길 때에는 自己는 他人과 類似하며 他人에 依存하며 他人과 連繫되어 잇는 것이다. 그리하여 自己를 오직 社會成員의 一員으로서 自己의 行爲를 社會에 對한 義務로서 생각할 때 그들의 倫理的 習慣은 한 개의 社會的 規範으로서 客觀的 強制力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的 規範으로의 倫理는 그들 社會成員의 生活習慣이 持續되는 限, 그 成員 各自가 어떤 不平과 不滿을 表한다 할지라도 한 개의 自然法과 가튼 絕對力을 가지고 모든 人間의 行爲를 支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倫理的 強制에서 벗어나려면 人間은 그 生活習慣에서 벗어나 數박게 업다. 自己를 習慣의 아들로서 또는 客體的 存在로서 滿足할 것이 아니고 모든 習慣을 지어내는 主體的 存在로서 自覺하지 안으면 안된다.

셋째, 格率的 倫理는 한 개의 獨斷的 意識形態이다. 이 獨斷的 意識은 어느 倫理學者의 獨斷을 말함이 아니고 한 개의 時代的 意識의 獨斷을 일음이다. 人間이 社會的 現實과 有機的으로 結合되어 잇을 때는 그들에게 安定이 잇을 뿐이다. 이때에는 아무런 精神的 不安도 心理的 懷疑도 업다. 여기에는 오직 肯定이 잇을 뿐이다. 그런대 肯定은 探究의 精神에서보담 自足的 精神에서 오는 것이다. 所與된 現實에 滿足하며 그것을 絕對化시키려는 대서 倫理的 獨斷이 생기는 것이다. 도그마(獨斷)는 『探究』의 精神에서가 아니고 自足的 精神 또는 保守的 精神에서 오는 것이다. 獨斷은 理性的 省察이 아니고 理性이 現實을 保守하려는 感情과 結合되어서 일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倫理는 오직 常識的 自明性을 가지고 잇을 뿐이요, 그 自體에 아무런 明朗性을 갖고 잇는 것이 못된다. 普通 倫理學을 들추어보라! 그들은 正義感이니 良心이니 하는 것을 主張할 뿐이요, 正義가 무엇인 것 良心이 무엇인 것을 理論的으로 說明하지는 못하고 잇는 것이다. 그들에 依하면 格率은 한 개의 絕對的인 것이여서 사람들은 오직 거기에 服從할 뿐이요 그것을 批判할 수는 업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格率的 倫理가 歷史的 見地로 볼 때 한 개의 社會的 均衡期의 倫理的 形態임을 알 수 잇을 것이다. 均衡期에 잇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人間의 凡庸化, 平均化를 要求하며 그 社會를 絕對化시키는 規範이 要求될 것이며, 그 社會制度에 適用되는 自明的인 것만이 그 時代를 지키는 倫理가 될 것임으로써이다. 그러나 社會가 그 自體 內에 큰 矛盾을 가지게 될

때 그리하여 社會가 均衡을 維持할 수 업게 될 때 이러한 沒人間的, 規範的, 獨斷的 倫理가 또한 無力해질 것은 누구나 常識으로 判斷할 事實이다.

베르손은 『閉鎖된 社會』의 倫理 以外에 『開放된 社會』의 倫理가 있음을 말했다. 前者를 家族的, 國家的 社會의 倫理라면, 後者は 『人類社會』의 倫理인 것이다. 우리는 便宜上 前者를 社會的 倫理, 後者를 人類的 倫理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런데 사람들은 社會的 倫理가 延長되어 人類的 倫理가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잇스나, 前者로부터의 飛躍的 超越이 업시는 人類的 倫理는 成立되지 못한다. 웨-그러나 하면 한 國民의 道德이 다른 國民의 道德이 될 수 업는 거이니 그것은 戰爭의 例에서 알 수 잇을 것이다.